

[붙임]

DU-도전학기 결과보고서

성명		학번	
단과대학		학과(전공)	
도전학기 과제명	(한글) 첫 직장 생활에 대한 적응기와 서울 생활 생존기 책 만들기 (영문) Seoul in work life and adaptation to life, write a collection of essays		
지도교수 의견	사회초년생인 만큼 스스로에 대해 많은 시간동안 고민하며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을 기록하기 위한 책을 만드는 시도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나은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를 바람.		

1. 도전 과제의 목표

도전 ; 첫 직장에서의 생활과 첫 서울 상경에서의 생활에 대한 나만의 수필책 만들기.

도전 과제 목표 ; 홀로 첫 상경한 서울에서의 다양한 장소와 볼거리에 대한 일상 리뷰들과 첫 직장에서의 새로운 경험에 대한 나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담아내는 목표, 속 내용들을 '산업 디자인' 전공인 저의 전공을 살려 다양한 일러스트들로 표현하고 저만의 스타일로 책을 편집 디자인 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회인으로서의 첫 출발점인 지금의 순간을 기록하고 고찰하여 그것을 책 속에 담아내는 작업을 하여, 현재 제가 처해있는 환경에 대한 피드백으로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싶습니다. 저만의 첫 출발점과 낯선환경에 대한 적응하는 생활들을 담은 유일무이한 경험 수필집을 읽으며 훗 날 더 나은 제 자신이 되어 보람차고 따뜻했던 경험이 될 수 있고자 합니다.

2. 도전 과제 내용

Contents

Storytelling

1

첫 직장 생활 생존기 기록하기

처음 마주하는 공간과 상사라는 사람, 그리고 동료와 사장 각각 다른 직위와 각각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 태도. 처음부터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들어도 막상 그 자리에 직접 부딪히면 실상은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저 또한 처음 마주하는 순간에 대해 직접 부딪히며 몸소 체험하고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 순간, 딱딱한 논리대로 풀어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물 흘러가듯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독자들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라는 식의 수필집이 아닌, 어떠한 상황에 대해 일기 쓰듯 자세히 풀어쓰고 그것에 대해 제가 스스로 고민하고 성찰하는 생각하는 과정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꼭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에 포커싱이 맞추어졌었던 일반 도서들과 달리 저는 제 자신이 더 나은 사회인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 도전 목표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직접 느끼고 깨달은 과정을 써내려가고 채움으로서 앞으로 더 나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올바른 첫 단추를 끼우고자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고민과 생각

스스로의 솔직한
생각들로 글 담아내기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피드백

/ ‘진짜’ 이력서 쓰기 & Personal Bra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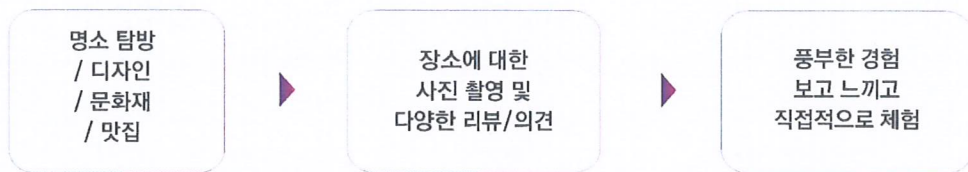
우리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걷고 있습니다. 남들도 걷고 있으니 멈추면 낙오자가 되는 것만 같아 걷고 있는 것이겠지요. 지금껏 ‘스펙’을 위한 실행 과정을 빼고 살아온 인생에 대해 오로지 ‘저’라는 사람에 대한 스피치를 해 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말문이 막힐 수 밖에 없었고 제 자신에 대해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 회의감이 들곤 했습니다. 정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남들이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제가 추구하는 인생과 가치관에 대해서 감을 못잡고 있었습니다.

저 라는 정체성에 대해 사회 초년생인 지금, 확고하게 생각해 놓지 않는다면 저는 그저 그렇게 매일 매일 사는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가질 직업인 ‘디자이너’라는 직업 또한 본인의 개성과 정체성이 확고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직업 이기에 커리어를 쌓기 위한 단단한 기반을 다져 놓고자 합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제 스스로의 색깔을 찾고 상징화하여 이미지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한 기록 과정과 고찰 과정들을 통해 키워드를 도출하고 분석하며 스스로를 하나의 ‘브랜드’화 하여 하나의 또렷한 색과 캐릭터성을 부여하여 시각화 하는 과정(Personal Branding)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감 기록장

서울로 직장을 얻게 되면서 이 곳에서 얻는 새로운 신선함과 느낌을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공 특성상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보이지 않는 영감을 잘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느끼는 새로운 감정과 영감들은 추 후 제가 가진 하나의 큰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경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가만히 일만 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여러 숨은 명소들과 새로운 장소들을 찾아 탐방하며 사진으로 남기고 그것들에 대한 영감들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하루라도 더 젊을 때 더 좋은 곳을 많이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 전공에도 많은 영감들과 경험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입니다.



기존에 단순히 글만 있는 자기계발서는 진부하고 지루합니다.

뻑뻑하게 기록된 글자 속에서 정말 내게 필요한 문구들을 찾느라 정신 없이 형광펜 내지 컬러펜으로 밑 줄을 긋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사실 자기계발서를 읽다보면 좋은 얘기 천지라, 몇 장만 읽고서 접어두고 댄 일을 하고 다시 펴보지도 않은 책이 수도룩 합니다. 하지만 저는 몇 장 펼쳐보고 잊어버릴 책이 아니라, 끝까지 읽고 소장하고 싶은 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더이상 지루한 글 뿐인 책은 NO! Play 하자!

저는 디자인 전공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제 자신만의 artbook으로 자기계발서를 재탄생 시키고자 합니다. 구성은 스스로 성찰하고 고민하고 부셔지며 기록된 '저'라는 자아가 하나의 캐릭터 성을 가지고 책의 내용을 이어 갑니다. 캐릭터가 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일러스트로 기록되며 상황에 맞게 직접적으로 떼고 붙이며 하나의 '놀이'로서 직접적으로 인물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장의 역할의 **Artbook concept** 입니다. 캐릭터가 책 내에서 다양한 일들을 겪는 과정들을 일러스트로 시각화 하여 보여주고, 직접적으로 캐릭터와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Play' 로 직접적으로 매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촉감을 활용하여 더욱 가깝게 외닿아지기

또한, 내부에는 캐릭터도 존재하지만, 그 당시 느꼈던 감정과 기분을 형용할 수 있는 '소재'들로 구성하여 종이가 아닌 **다양한 소재들의 촉감이 느껴지는 책**을 만들 예정입니다.

책이 예술 작품이 되어 영원히 소장하다. **Collection Artwork.**

최종적으로는 책을 다 읽고 난 후, 책 내부에 삽입된 캐릭터들을 모두 종합하여 하나의 Collection으로서 책이 또 다른 예술 작품이 되고, 예술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해하고 참여한 증표로서 소장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책 내부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이를 어떻게 조합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개성 넘치는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하여 어딘가에 꽂혀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용성으로 또 다른 측면으로 책을 소장할 수 있습니다.**

3. 도전 과제의 성과

-다양한 사회생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생각을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스스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속에서 타협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의 신분이 아닌 사회 초년생 직장인으로서 더 수월하게 거듭날 수 있었다.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몸소 부딪히고 배워야 하는 것들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찰나의 순간에 대한 생각들을 고심하고 고찰하고 스스로의 태도 및 사회에 대한 피드백을 기록함으로써 좀 더 깊이있는 사고를 하여 나 자신과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바쁜 여유상 많은 즐길거리를 즐기지는 못하였으나, 커리어의 영감에 도움이 되며 책을 만드는 것에서도 본질적인 '종이'에 대한 감각을 알 수 있었던 'paper present'와 같은 전시회를 다니며, 다양한 볼거리와 감각을 일깨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다양하고 많은 문화 생활들을 즐길 수 있는 도심지에 이곳 저곳을 조금씩 다녀보면서 앞으로 더 많은 문화 생활을 즐기며 디자인적 연구와 감각을 쌓고자 한다.

-글을 쓰고 그것에 대한 일러스트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현재는 제품 디자인 계열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추 후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꿈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커리어에 대해 작업물을 진행하면서 추 후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스킬들을 터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사람들의 눈에 떨만큼 화려하거나 스킬이 멋진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표현하는 작업물로 표현하는 과정이 즐거운 작업이었다.

-사실 책에 글을 쓴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어떤 글이던 써넣으면 되지만 아트북이라는 컨셉으로 처음부터 결과물까지 내가 직접 기획하고 수제로 직접 만드는 것은 쉽지는 않았다. 글만으로 내용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난잡해보이지 않고 깔끔해보이면서도 예술작품으로서의 개성있고 독특한 역할로서 읽는이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하였다. 그 결과로, 하나 하나의 에피소드마다 연결되는 감정과 내용과 연관된 소재 및 컬러로 촉각, 시각으로 나의 글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글만 읽는다면 지루하고 뻔하지만 직접 글을 읽으면서 특수종이의 질감과 색채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재미와 체험하는 즐거움을 줄 수 있었다. 또한 기계로 엮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제 book binding 클래스를 수강하면서 더 폭넓게 책을 엮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이젠 어디서든 전통 book binding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킬을 터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4. 자기평가

- 글을 쓰고 다양한 문화들을 즐기면서 나에 대해 좀 더 가까이 알 수 있게 되었다.
전에 했던 프로젝트는 제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면서 만드는 작업을 스스로 진행하는 작업으로 많은 능력의 역량을 필요로 했었다면, 이번 작업을 통해서는 적다면 적은 시간이고 많다면 많은 시간이었겠지만 직장생활을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스스로 느꼈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성찰하고 피드백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나를 더 깊게 알고 피드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더 나은 나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직장 생활을 처음 하다보니 뭐든 정석대로 해야 할 것 같고, 잘해야만 해야 할 것 같은 강박감이 있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보다는 '맞추어야만 하는 어떤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맞추고 발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보니 숨통이 조이고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도전학기제를 진행하면서 하고 싶지만, 해야만 하는 이 작업 덕분일지는 몰라도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순간의 감정과 생각들을 기록하고 더 깊게 철학적으로 파고 들면서 생각을 거듭하면서 깨닫는 여러 가지 성찰에 대한 것들을 느끼며 계속해서 기록하고 싶어졌고, 다시금 펼쳐서 내 이야기를 보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 되고 있었다.

평소에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은 즐겼지만 끝까지 읽는 일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었는데, 이번 책쓰기 활동을 통해서 많은 책들을 접하게 되었고, 다양한 저자들의 생각을 읽게 되면서 그들이 누구나 다 알아줄 만큼 특별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스스로의 인생 그 자체를 쓰는 것만으로도 유일무이하며 찬란한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신선한 소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가장 감명 깊었고 참고를 했던 책의 이름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와 '신경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었다. 둘의 책의 공통점은 휘황찬란한 어휘와 누구나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어투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가식없이 본연 자체를 드러내는 행위였고 깊게 감명을 받았다. 굳이 '잘 될 것이다.' 와 '잘 할 것이다.'라는 말로 포장하여 독자들에게 현실과 괴리감이 먼 격려를 해주거나 말도 안되는 비현실적인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 직시하여 바라보며 그것에 대해서 직설적인 말로 생각을 다시 한번 깨워주는 역할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 점에 영감을 얻어 글을 쓸 때, 나를 응원하고 잘 할 것이다 라는 영혼없는 긍정적인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말고, 스스로 실제로 느꼈을 그 감정을 그대로 책안에 녹여내어 다시금 책을 읽었을 때 거짓없이 그 감정에 대해 되살려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주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졌기에 그러한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어찌되었건 직장인들의 애환과 고통, 그리고 나날이 반복되어지는 지루한 삶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가지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역할놀이에 스스로 하나

의 역할이 되어 있으면서 느꼈던 다양한 일들을 솔직하게 녹여내어 나 자신 그 자체로서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어 스스로 너무나 값진 작업이라고 생각되었다. 학점, 학교, 해야만 하는 과제. 로서 그 이유만으로 내가 이러한 긍정적인 결론과 자기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죽기 전에 한번은 꼭 써봐야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에게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다시한번 돌아보며 성장 할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

- 아트 북 및 일러스트 엽서 제작

